

# 순위 싸움 열쇠 쥔 호랑이 “우린 우리 길 간다”



윌리엄스 감독



1위 NC, KIA에 고전...잔여경기 팬·취재진 관심 집중  
KT·LG·두산과 각각 1경기...KIA 성적따라 희비  
혼전의 2~5위 막판 순위 싸움 고춧가루 부대 부상

‘호랑이 군단’이 순위 싸움의 ‘복병’으로 잔여경기 일정을 시작했다.

20일 NC 다이노스와의 경기가 열린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는 올 시즌 가장 많은 인원이 집결했다. 이날 관중석이 재개방되면서 그라운드를 기다렸던 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기자실도 만석이였다.

많은 취재진이 찾은 이유는 챔피언스필드에서 2020시즌 우승 삼패인이 터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1위 NC는 매직넘버 3을 안고 광주를 찾았다. 21일까지 진행되는 KIA와의 2연전 결과에 따라 광주에서 우승이 확정될 수 있던 터라 많은 이들이 이목이 집중됐다.

KIA는 5강 싸움에서 밀려있지만, 순위 싸움의 ‘키’는 쥐고 있다.

잔여경기 일정에서 NC, KT와 두 경기가 편성됐고 LG, 두산과는 한 경기씩 남아있다. 매일 순위가 요동치는 2~5위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KIA의 움직임에 따라서 2020시즌 최종 순위도 달라질 수 있다.

NC의 경우 우승 고지의 9부 능선은 넘었지만, KIA에 막혀 우승 타이밍이 늦춰졌다.

KIA가 순위는 한참 뒤져있지만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번 맞대결 전까지 8승 6패를 기록하면서 LG와 1위 NC와의 상대 전적에서 앞서 있다.

KIA는 지난주 창원 원정에서도 2승 1패로 워닝시리즈를 가져오면서, 2011년 창단 이후 첫 우승 순간을 기다리는 NC의 애를 태웠다.

윌리엄스 감독은 20일 경기 전 취재진과의 자리

에서 “우리가 두 경기를 모두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며 웃었다.

우승은 축하할 일이지만 홈팬들이 지켜보는 안방에서, 다른 팀의 우승 순간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게 윌리엄스 감독의 솔직한 마음이었다.

윌리엄스 감독은 “NC라는 팀이 잘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NC와의 경기 때 타선이 잘 터져줬다. 결정적인 한 방이 나왔던 것 같다”고 앞선 우위를 이야기했다.

이어 “두 경기에서 우리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NC가 상황에 맞는 플레이를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실점 안 하는데 집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토타자로 “만점활약”을 해주고 있는 최원준도 NC의 우승을 더욱 빛나게 하는 승부를 다짐했다.

최원준은 앞선 창원 원정에서 4안타 경기를 하는 등 워닝시리즈를 이끌었다.

이날 경기 전까지 올 시즌 NC에 0.371의 타율과 6타점을 기록했다.

최원준은 “제일 잘하고 있는 팀이다. 우리가 좋은 승부를 해야 NC의 우승이 더 빛날 것이다”며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시 홈팬들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한 기대감도 보였다.

최원준은 “확실히 팬들 안 계시니까 연습경기 시범경기 하는 것 같았는데 (LG와의 주말 3연전 동안) 잠실에 팬들이 많이 와주셔서 야구하는 느낌이였다”며 “그동안 내가 못하던 잘하던 응원 많이 해주셨다. 재미있는 야구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최원준

## 광주진흥·광주동성고 산뜻한 출발

봉황대기 고교야구, 순천효천·정읍인상고 등 2R 진출

광주진흥-광주동성-순천효천-정읍인상고가 봉황대기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진흥고가 20일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서울디자인고와의 제48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1라운드에서 6-1 승리를 거뒀다.

김지성의 내야안타로 시작한 1회 상대의 실수 연발로 2점을 뽑은 진흥고는 2회에는 사사구 4개와 문동주의 안타 등으로 3점을 뽑으면서 일찍 분위기를 가져왔다.

황건우가 선발로 나와 5이닝을 2피안타 6볼넷 3탈삼진 1실점의 호투를 하며 승리투수가 됐다.

진흥고에 앞서 동성·효천·인상고도 1라운드를 통과해 32강에 올랐다.

동성고는 마산 용마고와의 첫 경기를 3-2 승리로 장식했다.

지난 8월 대통령배 첫 경기에서 용마고에 3-11 대패를 기록했던 동성고는 9회 역전극을 연출하며 설욕에 성공했다. 동성고는 1-2로 뒤진 9회초 1사 1루에서 임주찬과 심명훈의 연속 안타 등으로 분위기를 살리면서 역전승을 거뒀다.

효천고는 개성고를 7-1로 제압했다. 1회 1점씩 주고받은 뒤 4회, 5회 효천고의 타선이 움직였다. 4회 전도형의 2루타를 시작으로 이승재의 적시타가 이어졌고, 5회 2사 2루에서는 정윤석의 3루타 등을 묶어 7-1 승리를 장식했다.

이준선이 선발로 나와 5이닝 5피안타 5볼넷 7탈삼진 1실점의 호투를 기록했다. 정읍인상고도 박제범의 솔로포, 전희범의 스리런 등 장단 11안타로 김해고에 11-1, 8회 콜드승을 기록했다. 인상고는 22일 오전 9시 30분 ‘신생팀’ 나주 광남고와 다음 대결에 나선다.

한편 지난 16일 개막한 이번 대회에는 지역 예선 없이 80개 팀이 참가해 내달 2일까지 열전을 펼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최혜진, KLPGA 시즌 첫 승 도전

내일부터 영암서 휴엔케어 여자오픈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상 포인트 1위 최혜진(21)이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최혜진은 22일부터 나흘간 전남 영암의 사우스링스 영암컨트리클럽(파72-6420야드)에서 열리는 KLPGA 투어 휴엔케어 여자오픈(총상금 8억원)에 출전한다. 최혜진은 이번 시즌 대상 포인트 부문에서 357점을 획득,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아직 우승이 없다. 에쓰오일 챔피언십을 포함해 13개 대회에 출전해 7월 아이에스동서 부산오픈 33위를 제외하고 모든 대회에서 10위 내에 들 정도로 꾸준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고 성적은 6월 한국여자오픈 3위다.

18일 끝난 메이저 대회 KB금융 스타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이번 시즌 상금과 평균 타수 1위 김효주(25)는 이번 대회에 불참한다.

상금 2, 3위인 박현경(20)과 임희정(20)은 이번 대회 우승 상금 1억4400만원을 받아도 김효주를 추월하지는 못하지만, 간격을 좁힐 좋은 기회다.

올해 5월 KLPGA 챔피언십과 7월 아이에스동서 부산오픈에서 2승을 따낸 박현경은 시즌 3승 고지 선착을 노리고, 상금과 평균 타수 2위 임희정은 시즌 첫 승을 노린다. /연합뉴스



## 최지만, 첫 WS 우승 열망

탬파베이 최지만이 20일 LA 다저스와 월드시리즈가 열린 미국 텍사스 글로브라이프 필드에서 수비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탬파베이 vs 다저스...글래스나우-커쇼 선발대결

클레이턴 커쇼(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타이러 글래스나우(27·탬파베이 레이스)가 2020년 월드시리즈(WS) 서막을 연다.

양 팀은 21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열린 2020년 미국프로야구(MLB) WS 1차전 선발로 커쇼와 글래스나우를 각각 예고했다.

커쇼는 2017년과 2018년 총 5차례 WS에 등판했다. 글래스나우는 처음 경험한다.

정규시즌에서 개인 통산 176승 76패 평균자책점 2.43으로 활약한 커쇼는 가을 무대에서는 자주 고개를 숙였다.

커쇼의 포스트시즌 개인 통산 성적은 35경기 11승 12패 평균자책점 4.31이다.

올해 포스트시즌에서는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시리즈 2차전에서 8이닝 3피안타 무실점,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디비전시리즈 2차전에서 6이닝 6피안타 3실점으로 호투하고 선발승을 따내 가을 악몽에서 벗어나는 듯했다.

그러나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챔피언십시리즈 4차전에서 5이닝 7피안타 4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커쇼의 WS 개인 통산 성적은 5경기 1승 2패 평균자책점 5.40이다. 다저스는 1988년 이후 32년 만에 WS 우승을 노린다. 커쇼도 생애 첫 WS 우승이 간절하다.

글래스나우는 올해 포스트시즌에서 5차례 등판해 2승 1패 평균자책점 4.66을 올렸다. 뉴욕 양키스와의 디비전시리즈에서 2일만 쉬고 등판하는 등 이번 가을 탬파베이 투수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